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광현

전화 031-5182-4253

보도자료  
2023. 2. 1.(수)

제 목

### 해군함대 공사 수주 관련 해군 군무원(4급)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 결과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해군 군무원 A○○(4급 서기관)의 함대 발주공사 등 수주 관련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 A○○(해군 선거공장1) 책임자)가 함대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2개 방산 납품업체로부터 합계 13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준 사실 등을 밝혀내어,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 ※ A○○는 군무원이므로 군사법원에 기소함
  - 뇌물을 공여한 甲업체 회장 B○○, 乙업체 대표 C○○ 및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직원 D○○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A○○는 甲업체에 총 3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약속하고, 甲업체는 향후 4년간('22.-'25.) 270억 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계획함
- 이번 수사는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 파견 중인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팀장 송경인)과의 협력수사를 통해 물품 거래대금을 빙자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안으로, 향후에도 수원지검은 국방부 검찰단과 협력하여 방위사업 분야 부패범죄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임

1) 합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공장

##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1. 피고인(총 4명)

- AOO(50세, 해군 4급 군무원) -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
- BOO(49세) - 甲업체 회장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 COO(58세) - 乙업체 대표 (금형 등 제조업체)
- DOO(59세) - 업체 직원

※ DOO는 甲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AOO에 대한 뇌물공여를 주선하고, '22. 7.경 乙업체로 이직하여 추가 뇌물공여에 적극 가담함

### 2. 공소사실 요지

- (AOO) '22. 1.~'22. 10. 함대 내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2개 업체로부터 **합계 13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처 명의로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BOO, DOO) '22. 1.~'22. 10. AOO로부터 위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의 뇌물을 공여 [뇌물공여]**
- (COO, DOO) '22. 6.~'22. 7. AOO로부터 위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8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뇌물공여]**

## II 수사 경과

- '22. 12. 26. AOO의 부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 '22. 12. 29. AOO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중앙지역군사법원)
- '23. 1. 13. AOO 구속 기소 (乙업체로부터 3억 8천만 원 뇌물수수)
- '23. 1. 31. BOO, COO, DOO 불구속 기소 및 AOO 추가 기소 (甲업체로부터 10억 원 뇌물수수)



##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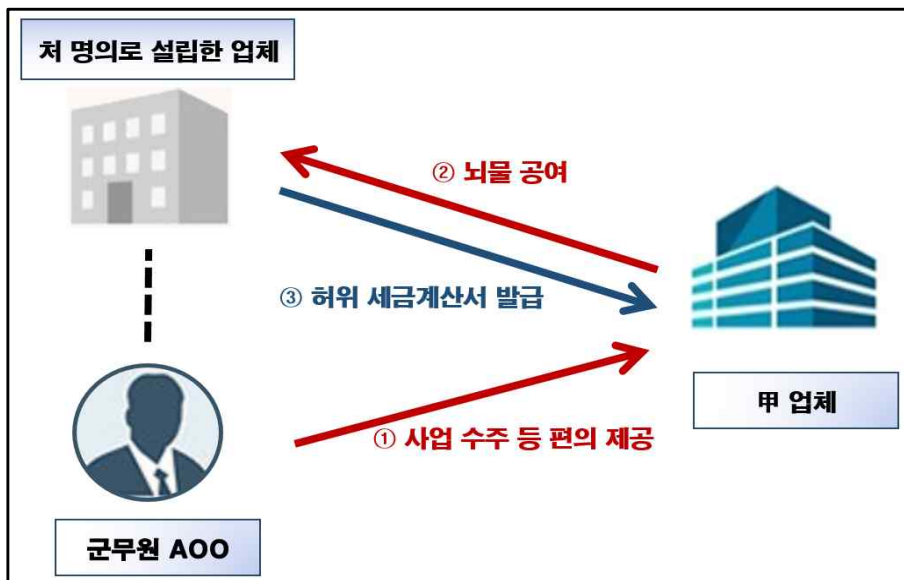
### 1. 국방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사건임

- 본건은 함정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해군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공여업체가 수주할 공사를 소요제기한 뒤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심사에 적극 관여하는 방법으로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임
- 함정 정비는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이 개입되어 국방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 2. 가장거래 수법을 통한 13억 8천만 원 뇌물수수 범행의 전모를 밝혀냄

- AOO는 처 명의의 개인사업체(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를 통해 뇌물을 정상적인 물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이용함

\* GPS 장비대금, 수중 절단 장비대금, 도료대금 등



- 수원지검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를 함으로써 1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수수 범행 전모를 밝혀냄

※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총 9명 규모)은 2021. 1.부터 수원지검에 파견 근무 중임

### 3. 향후 계획

-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의 실현'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수원지검은 향후에도 군검찰,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임 ☑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약]

순번	성명	공소사실 요약 (죄명)	처분
1	AOO(50세, 4급 군무원)	▶ '22. 1.~ '22. 10. 함대 내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甲과 乙업체로부터 합계 13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물품 매매대금인 것처럼 가장 <b>[특정범죄가중범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범위반]</b>	<b>구속 기소 ('23. 1. 13.)</b> 추가 기소 ('23. 1. 31.)
2	BOO(49세, 甲업체 회장)	▶ '22. 1.~ '22. 2. DOO과 공모하여 AOO로부터 위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1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b>[뇌물공여]</b> ▶ '22. 3.~ '22. 10. AOO로부터 위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억 9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b>[뇌물공여]</b>	불구속 기소 ('23. 1. 31.)
3	COO(58세, 乙업체 대표)	▶ '22. 6.~ '22. 7. DOO과 공모하여 AOO로부터 위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8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b>[뇌물공여]</b>	불구속 기소 ('23. 1. 31.)
4	DOO(59세, 甲·乙업체 직원)	▶ '22. 1.~ '22. 2. BOO와 공모하여 AOO로부터 위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1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b>[뇌물공여]</b> ▶ '22. 6. ~ '22. 7. COO와 공모하여 AOO로부터 위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8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 <b>[뇌물공여]</b>	불구속 기소 ('23. 1. 31.)